



7월 15일 총파업 깃발 아래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니다

자본의 일방적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은 위태롭기만 한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본은 흑자 속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총고용을 지키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넘어 첫 번째 관문인 원청 교섭을 반드시 쟁취합니다.

나아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업 교섭의 틀을 열어젖힙시다. 정부와 자본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만들어 냅시다.

변화의 수레바퀴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7월 총파업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니다! 투쟁!

금속노조 7.15 파업 대회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1차 7.15(수) 2차 8.26(수) 3차 9.2(수)  전국금속노동조합